

# 『2005 스마트홈 & 홈네트워크쇼』 6월 개막 준비, 순조롭게 진행



2005 스마트홈 & 홈네트워크쇼  
Smart Home & Home Network Show 2005

『2005 스마트홈 & 홈네트워크쇼』의 공동주관자인 한국 전자산업진흥회(회장 윤중용),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(회장 이용경),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회(회장 이주장) 및 한국국제전시장(대표 홍기화)등 4개 기관은 2월 1일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『2005 스마트 홈& 홈네트워크쇼』 공동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.

『2005 스마트홈 & 홈네트워크쇼』는 오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일산에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제규모 최첨단 전문전시장인 KINTEX에서 열리게 된다.

전시 규모는 총 면적 21,546㎡(1,000부스)에서 20여개국 300여 업체가 참가하는 가운데 관람객 50,000명(해외 바이어 2,000여명) 내방하고 홈엔터테인먼트, 디지털정보가전, 홈시큐리티, 홈오토메이션, 미래주택, 홈네트워크 관련 신성장동력 분야의 첨단 제품과 미래의 기술을 보여줄 것이다.

### 동전시회의 특징으로는

- 세계최초로 스마트홈 및 홈네트워크산업분야를 대표하는 국제규모의 전시회
- 산업의 성장기에 개최되어 산업을 리드하는 산업선도 전시회
- 관련정부부처 및 단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시너지배가형 전시회
  - \* 공동주최 : 산자부, 정통부
  - \* 공동주관 : 한국전자산업진흥회,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, 제어·자동화·시스템공학회, 한국국제전시장
- 국제자동제어학술회의(ICCAS), 홈네트워크 글로벌 서밋 등 국제 행사와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되는 종합적인 정보공유의 전시회라는 것이다.

또한 『2005 스마트홈 & 홈네트워크쇼』가 개최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홈네트워크 산업을 대표하는 국제규모의 전시회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.

첫째, 우리나라가 성장기에 있는 세계 홈네트워크산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과 확산 기여하는 등 세계시장에서 관련산업의 주도권을 잡게 되고 둘째, 대규모의 홈네트워크산업관련 전문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 및 해외시장 확대의 기반을 조성하고 셋째, 동전시회를 산자부, 정통부 및 산하 관련기관들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됨으로써 관계부처의 정책 협력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



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시회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.

이번 전시회는 삼성전자의 홈비타, LG전자의 홈넷, SKT, KT, 현대이동통신이 참가할 예정이며,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 등도 참가를 계획하고 있으며, 해외에서는 CES, Cebit 등 유명전시회를 통한 해외업체 유치와 KOTRA등을 통한 해외 바이어 초청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명실공히 관련분야의 성공적인 국제전시회, 상상속에 있던 유비쿼터스 라이프를 현실로 보여주는 첨단 미래형 전시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### 전시품목

#### | 유비쿼터스·엔터테인먼트관 |

홈에타네트워크, 미디어컨텐츠, 온라인/네트워크 게임, e-Learning, e-Commerce, RFID, IEEE Technology, 블루투스, 센서, 전력선통신, 스마트 모듈 등

#### | 차세대 모바일관 |

유무선통신기기, DMB, Cable TV, 텔레매틱스, 네비게이션시스템, 스마트카드, 셋탑박스, H-Commerce 광통신망, 원격제어 등

#### | 디지털정보가전관 |

네트워크가전, DTV, 홈시어터, 홈네트워크 보일러 등

#### | 홈시큐리티·홈오토메이션관 |

DVR, CCTV, 가스검침, 전기/에너지 관리, 홈자동제어 및 원격제어 (냉난방, 환기, 가전기기제어), HVAC, 지문/홍채 인식시스템, 도어록, 방문관리, VOD, 무인/출동경비, 주차제어, 홈헬스케어, 실버등

#### | 미래주택관 |

지능형홈네트워크 APT, 환경, IBS, OA 등

#### | 차세대 성장동력관 |

지능형홈, 지능형 로봇 등